

## 신년사

2018년 1월 1일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가 저물고, 희망찬 무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새아침, 국제대학교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충만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총명함과 충실함, 공준과 동행의 상징인 무술년 개띠해의 좋은 기운에 힘입어, 화목하고 만사에 큰 성취 이루는 한 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 **친애하는 국제대학교 가족 여러분!**

돌이켜 보면 지난 2017년은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기대를 설계에 담기 위하여 분주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주춧돌을 놓고 내실을 갖추기 위해 우리 모두 힘써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밑그림 위에 학생중심, 교육역량 강화에 목표를 두고 튼실한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과감한 판단과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 **국제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최근 대학을 둘러싼 변화의 물결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입학자원의 근간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진학을 감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53만 명이었던 대입자원이 5년 후인 2022년에는 40만 명 선까지 무너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학 입학정원이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 수보다 10만 명이상 초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대학 50개가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며, 이는 과거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우리 대학은 더욱 난감한 형편입니다. 2018학년도 전문대학 전국평균 경쟁률이 7.4대 1, 수도권인 경우 10대 1을 상회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대학은 5.35대 1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과가 적어도 7~8대 1은 넘어야 정원 충원이 원만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지난해의 미달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대학의 어려움은 해가 거듭될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학의 신인도 향상과 함께 특별한 자구책이 마

런되지 않으면 머지않아 존폐를 걱정해야 될 런지도 모를 일입니다.

### **친애하는 국제대학교 교직원 여러분!**

저는 올 한해 우리 국제대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자 본인이 소유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2018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대학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 역량과 발전 동인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를 가감 없이 직시(直視)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省察)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든 구성원들이 화합을 이루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중심의 사고와 이기심은 우리 모두의 발전과 전진에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함께 걱정하고 함께 미래를 개척해 가야 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때, 개인 역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모든 구성원들이 양보의 아름다움을 한껏 발휘하여 더불어 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부의 어려움은 내부에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합니다. 학내의 일들을 외부로 확대, 재생산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입니다.

**셋째,** 과감한 변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도전과 변화를 피하거나 두려워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와 정성을 모아 간다면 무술년은 분명 우리에게 변화를 통한 커다란 기회의 한해가 될 것입니다.

**넷째,** 학내·외의 모든 경영은 공정, 공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반 시설 및 공간의 이용을 비롯하여 주어진 예산에 이르기까지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들이 빈약할수록 차별적 분배와 운영이 있다면, 역차별에 의한 소외로 하여금 대학 발전에 작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나눔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제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인 우리나라 대학들의 군집(群集)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스스로를 특성화 하는데 힘을 모으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장 수요에 맞추어 분명한 특성화를 이룰 수만 있다면 작금의 위기는 헤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학과와 학문분야는 적극적으로 특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학과의 경쟁력은 학과 구성원들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학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고 도전과 변화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국제대학교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시작을 시도해야 합니다. 새로운 가치와 희망을 추구해야 합니다. 모든 자원과 조직이 학생을 중시하며, 학생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구성원 모두가 열정을 쏟는 대학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야말로 우리 국제대학교의 경쟁력을 확고하게 하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 친애하는 국제대학교 가족 여러분!

새해에는, 국제대학교 가족 모두가 더욱 합심하여 학문 분야의 특성화를 비롯하여 산학협력의 모범적인 모델, 그리고 세계 속에 뿌리내리는 우리의 국제대학교가 되도록 정성을 다 해 나갑시다.

다시 한 번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애쓰신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가 큰 성과를 만들어 내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중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늘 강건하시고 가정마다 행복과 풍요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元牡  
국제대학교 총장 장 병 집

※별첨 : 2018년 1월 1일 교원 승진에 적용한 평가 항목, 배점 및 기준(총장 설정)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①교원업적평가	30	평가자료가 존재하는 2012년 이후 2016년까지(5년)의 교원업적평가 점수를 산술평균, 이를 30점 만점으로 환산(학과평가결과 반영)
②현 직급 근속기간	20	현 직급 승진이후 최고 근속기간 교원 만점(20점) 부여 1년에 1점씩 차감하여 산출
③보직수행	5	본부처장급(5점), 부속기관장급(4점), 학과장·부처장·주임교수급(3점)을 1년 단위로 점수를 합산(6개월 이하는 1/2)하여 산출하고 최고점수(5점) 교원의 상대점수로 환산
④상·벌	-5~ +5	교내 : 이사장상(2점), 총장상(1점), 교외 : 대통령(5점), 장관급이상(4점) 차관급이상(3점) 벌점 : 대학 규정의 기준표 적용
⑤총장평가	3	학과 및 학교 발전의 기여도를 총장의 정성적인 판단에 의하여 평가 (급번 총장평가는 우열 구분이 어려우므로 일괄 3점 부여)
계	60	